

[2026년 단기집중 신임교리교사 연수 시험 출제 내용]

1. 주요 기도문

▶ 사도신경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 식사 전 기도

† 주님, 은혜로이 내려주신 이 음식과
저희에게 강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식사 후 기도

†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 아멘.
†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아멘.

▶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 **성모송**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 **영광송**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천주교 4대 교리

- ▶ 천주존재 :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느님은 한 분이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 ▶ 상선벌악 :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이 끝나면, 악인은 지옥에서 스스로의 악행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될 것이고, 의인은 하느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 ▶ 삼위일체 : 성부, 성자, 성령, 삼위(三位)가 한 분이신 하느님이라는 뜻으로, 세 위격(位格, persona)이 완전히 서로 구별되면서도 동시에 한 신성(神性)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또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에 힘입어, 하느님께 구원을 받는다는 그리스도교의 구원 진리를 요약한 개념입니다.
- ▶ 강생구속 : 인간이 죄를 지어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됨(강생)으로써 인간의 죄를 대신 보속했으므로 누구든지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3. 성모 마리아 4대 교리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요한 19,27)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는 성모님을 향한 최상의 공경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느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과는 다른 것으로, 성모 4대 교리 또한 성모님에 대한 성모님 개인에 대한 교리가 아니라, 성모님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자, 참 하느님, 참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 ▶ 천주모친 : 성모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참 인간이십니다. 동시에 성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성자 하느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고백하는 것은 그분의 아드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서 성부 하느님과 동일한 신성을 지니신 성자 하느님이시라는 믿음을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이미 3세기부터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기도 가운데 사용했습니다.

- ▶ 평생동정 : 성자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성모님의 동정 잉태는 세상의 논리로 설명될 수 없는 사건으로, ‘하느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루카 1,37)는 말씀이 실현된 사건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느님이심을 증명하는 하나의 징표가 되어줍니다. 평생동정의 삶을 살아가신 성모님은,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지고한 사랑과 충실함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 ▶ 무염시태 :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며, 그러한 하느님의 유일무이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성모님은 ‘잉태될 때부터 인간의 원죄에 물들지 않고’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성모님의 태 안에 모신 분이 다른 아닌 성자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은 성자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는 이들, 그리스도로 인해 죄로부터 해방된 이들에게 예언적 표징이자 희망이 되셨습니다.

“마리아의 무염시태는 하느님 은총의 결과로서, 은총의 통로이신 그리스도의 특별함을 더욱 돋보이게 만듭니다. 하느님은 마리아가 단 한 순간도 원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실 수 있으셨고, 그렇게 되길 원하셨으며, 그렇게 하셨습니다.

-중세 철학자 둔스 스코투스(1266-1308)

- ▶ 몽소승천 : 죽음에 승리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도 같은 구원의 희망으로 초대받았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이 땅에서의 시간을 마치신 뒤 하늘로 들어올림을 받게 되심은,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구원의 희망이 참된 약속이라는 믿음을 더해줍니다.

이처럼 성모님은 모든 믿는 이들의 모범이자 대표로서, 예수님이 참 하느님이시며, 참 구세주시라는 희망 속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십니다.

4. 교회의 핵심은 ‘7성사’입니다.

‘성사’ (聖事)란 단순히 ‘거룩한 일’이라 직역할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인간의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징들로 형상화한 거룩한 예식’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사에는 세례, 견진, 고해, 성체, 병자, 신품, 혼인의 7가지 성사들이 있어서, 이를 ‘7성사’라 부르게 됩니다. 이들 7성사는 사람이 필요에 의해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사도들이 이어받아 교회 공동체 안에 꾸준히 지켜온 신앙행위입니다. 만약 7성사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이들은 자동으로 파문될 만큼, 7성사는 우리 가톨릭 교회의 단일성과 연속성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 교회 :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모여서 이룬, 사람들의 공동체
- ▶ 성당 : 교회가 머물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며 실천하는, 건물 공간

5. 전례력

우리가 한 해를 열두 달로 나누어 그 안에서 다양한 명절과 중요한 날들을 기념하게 되는 것과 같이, 교회 안에서는 전례력이라는 기준에 따라 한 해 동안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그리고 다양한 사건들을 기념하게 됩니다.

- ▶ 대림시기 : 성탄 전 4주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 ▶ 성탄시기 : 12월 25일부터 주님 공현 대축일까지,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기입니다.
- ▶ 사순시기 : 재의 수요일부터 부활 대축일 6주간 중 주일을 뺀 40일 동안,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회개와 보속의 시기입니다.
- ▶ 부활시기 :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강림 대축일까지 5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다함께 기뻐하는 시기입니다.
- ▶ 연중시기 : 앞선 시기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간들로, 일상의 신앙생활 속에 구원을 향한 희망을 키워가는 시기입니다.

대림시기와 사순시기에는 회개와 보속을 상징하는 자주색 제의를 입습니다.

성탄시기와 부활시기, 성인들의 축일에는 기쁨을 상징하는 흰색 제의를 입습니다.

다만 대림3주일, 사순4주일에는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회개와 보속을 나타내는 자주색과 기쁨을 상징하는 흰색이 함께 섞인 장미색 제의를 입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난, 순교자들의 축일, 성령 강림 대축일에는 피와 성령을 상징하는 붉은색 제의를 입습니다.

연중시기에는 평화와 희망을 상징하는 녹색 제의를 입습니다.